



“한명의 고객 뒤에 200명 잠재고객 있어” ‘남구1호 백년가게’의 반세기 장사 철학

대연동 홍림토탈인테리어 박기홍 대표

오래된 컬러 사진 한 장을 꺼내 보 여준다. ‘생초 카텐카페트상사’라는 큰 간판이 보이고 그 밑으로 흰칠한 청년 한 명이 서 있다. 아련한 사진 속의 주인공은 “건너편에서 찍은 48년 전 사진”이라고 말했다.

대연동 못골골목시장에 자리 잡은 홍림토탈인테리어(대표 박기홍)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한 ‘2020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래 남구 1호 백년가게이다.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소기업·소상공인)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업소는 1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된다. 현재 전국 405곳, 부산은 34곳 업소가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생초 카텐카페트상사’는 박기홍 대표가 1970년대 초 처음 문을 연 가게로 지금의 홍림토탈인테리어의 전신에 해당된다. 가게 이름과 위치가 바뀐 이야기를 할 때 박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은 잡혔다.

젊은 시절 한일장식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그가 48년 전 못골골목시장에 ‘생초카텐카페트상사 대연대리점’을 열었고 얼마 안 있어 가게는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돌연 집주인이 잘 나가던 가게를 막무가내로 비워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해왔다. 당시만 해도 임차인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때였다. 홍 대표는 눈앞에서 생때같은 가게를 빼앗기고 ‘미싱, 가위, 전화번호’ 세 개만 가지고 쫓기다시피 나와야 했다. 50년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다행히 홍 대표의 근면함을 눈여겨 본 어느 이웃의 호의로 인근 가게에 들어와 다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때 홍 대표와 부인의 이름에서 글자를 따와 ‘홍림’ 인테리어로 가게명을 고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가진 자의 횡포에 몸서리쳤던 그였기에 약자에 대한 연민이 누구보다 컸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신도로 민주화활동에 참여하면서 약자를 지켜줄 ‘골목정차’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당시 아무도 지원하지 않던 야당 후보로 네 번의 지방선거 도전 끝에 2010년 남구의회 구의원에 당선됐고 재선



남구의 1호 백년가게로 최근 선정된 홍림토탈인테리어의 박기홍 대표 부부와 작은 아들 박상진씨. 사진 속 미싱과 가위는 50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사용하던 것들이다.

을 거쳐 8년간 생활정치의 일선에서 활동했다. 2008년 시장 상인회 회장에 도 선출돼 지금껏 시장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백년가게의 명성에 걸맞게 홍림인테리어는 2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지켜본 아들 둘이 모두 가업을 잇고 있다. 실내 디자인을 전공한 큰 아들은 현재 인테리어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고 작은 아들도 3년 전부터 하던 일을 접고 홍 대표

를 돕고 있다.

반세기 인테리어업에 종사한 홍 대표는 세월이 흘러 그때 고객의 어린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해 자신을 찾아와 인테리어를 맡길 때 더없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 홍 대표는 “한명의 고객 뒤에는 200명의 잠재고객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상의 노력을 기울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노력이 쌓여 5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륙도돌빵 한입에 침이 꿀꺽

용호동 오륙도돌빵 이효련 대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941’는 부산의 명물이자 명승 제24호 오륙도 여섯 섬의 지번주소이다. 이들 오륙도가 뻗어 보이는 남구 용호동 944번지(오륙도SK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는 이효련 씨는 오래전부터 이런 의문을 품었다. ‘통영에는 꿀빵이 있고 경주에는 경주빵이 있는데, 오륙도 일원에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드는데 왜 오륙도빵은 없을까?’

그렇게 ‘오륙도돌빵’이 탄생했다. 오륙도가 투박한 바위섬인 점에 착안해 이 씨는 돌 모양의 수제빵을 반죽해 만들었고 내친김에 지난해 이맘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상가에 빵집을 개업했다. 줄곧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탓에 가게 경영은 처음인데다 바로 옆에는 부산산 내로라하는 브랜드 빵집의 직영점이 터죽대감처럼 버티고 있었다.

다소 무모해 보여도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믿었다. 일찍이 그는 일반인 대상 TV 요리경연 최고상과 부산국제 음식박람회 조리경연 일반부 우수상을



받는 등 요리에 관해 비상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주먹 정도 크기의 오륙도돌빵은 아몬드가 듬뿍 들어간 얇은 빵 외피로 식감이 고소하고 담백하다. 또 검은깨를 섞은 앙금을 아낌없이 넣어 살하고 묵직하다. 실온에서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해 오륙도를 찾은 관광객이 선물이나 기념으로 가져가기에 적당하다. 특히 별도의 첨가물을 넣지 않아 아토피에 시달리는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좋다는 게 이 씨의 자랑이다. 가격도 개당 1000원으로 저렴해 남구의 착한 가격업소에 선정됐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아파트 내 상가임에도 입소문이 나면서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개되고 최근 부산시에서 발행한 부산지질탐방로 지도에도 등재되었다.

이 씨는 오륙도돌빵에 머물지 않고 작은 크랙커 일종인 ‘조약돌’과 ‘돌맹이’ 그리고 핫도그에 돌빵 반죽을 입힌 ‘돌도그’ 등 돌을 테마로 한 다양한 먹을거리도 만들었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다보니 이문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이 씨는 “부산역에 오륙도돌빵을 입점하는 것이 소원”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2020년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 안내

관내 ‘좌식’ 보유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입식좌석을 위한 테이블 및 의자(유아용 의자 포함) 지원

※ 본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 환경개선 활동은 전액 업소 부담 원칙 (지원범위 초과 금액은 업소가 전액 부담)

○지원규모 : 23개소 내외 → 업소당 300만원 이내 입식좌석 개선 지원

▷ 업소 자부담 10%, 지원금 초과금액은 전액 업소 부담

▷ 부가세 및 배송비 전액 본인 부담

※ 자부담금(부가세포함) 선 수납 후 환경개선 지원

○기대효과 : 음식점 시설개선을로 식품화수준 향상 및 지역 관광 역량 강화

○공고기간 : 2020. 6. 15.(월)~7. 15.(수)

○신청기간 : 2020. 7. 01.(수)~7. 15.(수) 18:00까지

※ 신청서류 및 절차 남구청홈페이지 공고 참조, 전자우편 및 우편(등기)

는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myh000111@korea.kr), 우편(등기)

○제출처 : 남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607-4414)

○문의 : 남구청 환경위생과(☎607-4414)

남구서 새 희망 꿈꾸는 ‘여행전도사’

하나투어 (주)옴뎀문화항공 하태량 대표

‘월매출 0원’

코로나19로 제아무리 힘들다한들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 사정만 할까. 전 세계가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와 선박이 뜨지 않으니 손님이 울리 않고 매출이 발생할 리 만무하다. ‘죽느냐, 버티느냐’ 여행업종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 와중에 하나투어 (주)옴뎀문화항공의 하태량 대표는 대연동 대연SK뷰힐스아파트 상가에 최근 여행사를 오픈했다. 어찌된 사연일까.

“사무실 이전 계약을 코로나19 사태 터지기 전에 했거든요. 계약을 물릴 수도 없고...” 그 대표가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호기롭게 내던 첫발치고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다.

그는 30대 초반이던 1996년 지인의 권유로 여행업에 발을 들였다. 베트남 할인항공권을 선매입해 일반인에게 재판매하는 일이었다. 당시 부산지역 신발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항공수요가 늘면서 운매를 만나 제법 돈을 쓸쓸하게 벌었다. 여행 분야의 남다른 감각으로 남들이 손대지 않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여러번 히트시켰다. 2006년 대마도 자전거 투어 상품도 업계 최초로 그가 내놨다고 한다. 이후 자유여행 등 해외여행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개인 여행사의 한계에 봉착해 2013년부터 하나투어 상품을 간접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은 타들어가도 그는 평정심을 찾으려 애쓴다. 20여 년 한 우물만 파온 그의 공력이 빛을 발할 때이다. 그는 코로나19 타개책을 한국인에게 여전히 로망인 제주도여행에서 찾았다. “5성급 제주신라호텔 숙박과 왕복항공권, 렌트카가 모두 제공되는 1박2일 제주도 여행이 19만9000원이 라면 안 가시겠습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3만 명이 넘는 고객DB를 통해 모객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테마골프’ 기획 상품을 만들어 자신이 개설한 네이바랜드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상품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소개에 소개로 회원 2300명이 모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그는 예측한다. “안전을 중요시해 단체 여행이 소규모 위주로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막 남구에 새로 등지를 튼 그에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이 사진은 실제 병원 전경입니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2주기 인증
유효기간 : 2018.7.24. ~ 2022.7.23



◆ 병원장 이재일(내과 전문의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卒)
◆ 치매, 뇌졸중, 파킨슨, 노인성질환, 물리치료, 의학 한의학 협진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 355-14 |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 우측



상담문의 051-612-0075
www.grandnature.kr

유료광고